

# 금융소득과세 2500만원으로 하향

### ‘박근혜식 증세안’ 윤곽… 5천억~6천억원대 세수 확충

#### 고소득 자영업자 최저한세율 10%P 인상

‘박근혜식 증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고 과세 대상을 넓히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방식을 통해 5000억~6000억원 가량의 재원이 확보되면 이를 상당 부분 복지 분야에 투입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타깃이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부자증세라는 풀이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새누리당 나성린 조세소위위원장은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율 조정을 제외하면 고소득층 증세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마련한 증세 방안은 크게 4가지 정도다. 우선 고소득 근로소득자·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식이다. 역대 연봉자들이 연말정산에서 받는 공제 총액을 2500만원 한도로 제한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최저한세율(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현행 35%에서 45%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대기업의 세(稅) 부담은 늘어난다.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세율은 현행 14%에서



출소 정봉주 “성공한 대통령 되길”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정봉주 전 의원이 25일 만기 출소.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는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을 생각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 증세를 요구하는 야당의 입장을 반영해 2500만원으로 500만원을 더 낮추기로 했다. 또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도 현행 자본 3%·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유가증권시장 기준) 대주주에서 자본 2%·시가총액 500억 원 이상 대주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위는 26일 조세소위원회 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최종 논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조세 개편으로 복지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박 당선

의 복지공약을 실현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고소득자 세(稅)감면액 제한,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등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약 5000억~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실현에 소요되는 연간 10조원의 5%에 불과한 셈이다. 당장 민주당은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을 통한 직접적인 증세를 요구하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민주 원내대표 경선 2파전 가능성

### 박기춘·전병헌 직접 출마 의사 피력

#### 추대론 거론… 3파전 될수도

민주통합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2파전 또는 3파전 양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계파 간 치열한 세대결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막상 경선에 뛰어들겠다고 나서는 이들이 많지 않아서다. 새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해 대선 패배 이후 혼란한 당을 수습하고 향후 진로의 밑그림을 짜는 중책을 맡게 된다. 지금까지 10명 안팎이 후보군으로 거론됐지만 3선의 박기춘 전병헌 의원 등 2명이 직접적인 출마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상태다. 원내 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지금은 정치색이 옅고 과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실무형 원내대표가 나와야 충들을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위원장을 지낸 전 의원은 “총선과 대선 패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나와 정권 초기 야당의 존재감과 위상을

정립해야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중진의원들은 당의 분열상을 만들면 안된다는 이유로 추대 형식의 원내대표 선출을 추진하고 있다. 4선의 김한길 신계륜 이낙연, 3선의 유인태 의원 등이 거론된다. 한 중진 의원은 “경선 희망자가 있어 완전한 추대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선을 치르며 추대 형식으로 후보를 내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보난을 겪는 것은 당내 주류와 비주류 할 것 없이 일정한 계파나 세력을 형성한 집단에서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최대 계파인 친노(친노무현)의 경우 대선 패배의 직접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골치아픈 시선을 받는 상황이어서 일찌감치 후보를 내지 않기로 입장을 정했다. 비주류 쇄신파 의원들로 구성된 쇄신노의모임도 분열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로 후보 배출에 부정적이다.

21명의 현역의원이 있는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나 손학규계 의원들도 원내대표 후보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역시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지만 차기 지도부 선출 때까지 당의 상황을 과도하게 좌우하는 경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혁신과 쇄신책을 마련하고 범야권 통합을 비롯해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은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가 맡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다. 또 원내대표 임기가 4개월에 불과한데다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후보군의 경우 상임위원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현실적 제약도 요인이 됐다. 분석이다.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전 회의를 열어 원내대표 선출 일정과 방식을 결정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美, 글로벌호크 한국판매 의회에 통보

### 4대에 1조3천억… 예상가보다 3배 상승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고(高)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판매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하면서 제시한 가격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아 구매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1일 글로벌호크 4대를 한국에 판매하겠다는 의향을 의회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DSCA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글로벌호크(RQ-4 블랙호크) 4대의 장비와 부품, 훈련, 군수지원 등을 포함한 판매 가격을 12억 달러(약 1조3000억원)로 제시했다. 미 국방부는 의회에서 판매 승인이 나면 곧바로 LOA(구매수락서)를 한국의 방위사업청에 보낼 것으로 관측된다.

미측이 의회에 제시한 1조3000억원의 우리 정부가 예상한 가격 4천여억원의 3배에 이른다. 특히 미측이 작년 7월 제시한 9400여억원에 비해



3600여억원이 오른 가격이다. 우리 정부는 대당 4000여억원으로 예상했던 글로벌호크 가격이 9400여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지자 그간 미측과 가격을 낮추는 실무 협상을 진행해왔다. 노스럽 그루먼사가 제작한 글로벌호크는 지상 20km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 수준급의 무인정찰기이다. 작전 비행시간은 38~42시간이며 작전 반경은 3000km에 이른다. /연합뉴스

## 민간차원 남북교류

### 올해 41건 106억원

개성공단을 제외한 올해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나 인도적 지원 등 비(非) 정치분야의 민간교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25일 “5·24조치에도 제한적으로 진행돼오던 민간차원의 비정치 분야 교류가 지난달 중순 이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사회문화 부문의 교류는 남북 합동미사를 위해 지난달 17~21일 평양을 다녀온 ‘평화3000’ 관계자들의 방북이 마지막이었다.

대북 인도지원 부문에서는 지난달 15일 경남통일농업협력회 관계자 4명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협의를 위해 개성을 마지막으로 다녀왔다. 이후 민간단체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북측과 접촉하거나 방북을 신청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11월까지 41건에 106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비정치분야 방북은 3차 회문화 10건(81명) ▲대북 인도적 지원 17건(117명) ▲이산가족 상봉 1건(2명) ▲개성공단을 제외한 경제분야 4건(42명) 등이다. /연합뉴스

# 민주 ‘박근혜 예산 6조원’ 제동

### “불필요 예산 삭감·소득세법 개정없이 국채발행 안돼”

#### 여야 ‘박근혜식 증세안’ 놓고 대립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른바 ‘박근혜 예산 6조원’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예산 정국에서 여야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6조원 정도 지출을 늘리고 국채 발행을 기정사실화했다”며 “이것은 꼼꼼히 따지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국채를 발행하려면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라며 국채 발행 이전에 ▲정부의 불필요한 예산 대폭 삭감 ▲감면제도 정비·소득세법 개정 등을 통한 세수 증대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이른바 ‘박근혜식 증세안’을 놓고도 대립했다. 새누리당은 비과세·감면부터 줄이

는 간접 증세를 내세웠지만 민주당이 세율 인상 등 직접 증세를 요구하며 맞선 것이다. 기획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잠정 합의한 세법개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이른바 ‘박근혜 예산 6조원’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세법개정안 논의로 불뚝이 튀었다. 민주당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박근혜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새누리당을 비판하며 적극적인 증세를 요구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빚을 저서라도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겠

다는 발상은 점령군과 같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소득세와 법인세 세제개편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인데다 박 당선인의 정책기조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당초 합의된 3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더 낮추고 ▲고액 연봉자의 ‘세감면 한도’를 당초 3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내리고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을 35%에서 45%로 높이는 방안 등을 ‘타협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끝내 파행했다. 세법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통과시켜야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철저·한·독·일 인·의·장 인·정·신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 음향 이득효과가 큼니다.
-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 ▶ 반영구적입니다.
-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중·고·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타사 보청기 환영)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

**한국공인중개사**

**부동산투자 경매 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입)특수물건

-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률 보장)
-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률 보장)
-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대지, 전, 답, 입야 매매 신속처리**

가족묘지, 남골묘, 산산, 농장, 전원주택지 공장용지, 임대용 아파트, 원룸, 상가 다량물건보유

**20년 원조**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하지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서구정양) 광주 서구 농성동 641-5 네이버 카페에서 hankookland로검색

通... 하십시오!

**신뢰있고 좋은 정보를 방문하신 고객님께 제공합니다.**

나주혁신도시 ·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목욕탕 매매**

1만5천여 세대 독점 성업중인 최신회 설 목욕탕, 높은 수익률

|       |                 |
|-------|-----------------|
| 대 지   | 2,480㎡(750평)    |
| 건 물   | 4,460㎡(1350평)   |
| 용 자   | 20억~25원 까지      |
| 매매가   | 40억원 (감정가 58억원) |
| 실 준비금 | 15억~20억원 까지     |

**행운공인중개사** 011-642-7777

**가 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금 매**

“담양” 무인텔 대 지 : 5,048㎡ 연건평 : 2,474㎡ 객 실 : 32개 현 성업중 상무지구에서 15분 매매가 상담후 결정

**염전 금매**

해남 염전 138,600㎡ 신안 지도 50,000㎡ 매매가 상담후 결정

상무지구 랜드피어 사가리 010-8289-8549

**대인동상일부동산**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명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연일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히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헬 011-602-2532 (광주은행 신촌점앞, 대인동 소방서건너편)